

淸貧과 儀節이 있는 世上...



朴 益 洙

韓國 과학저술인협회會長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끝났다. 여당의 압승에 야당의 승복으로 마무리 되고 있지만 선거과정의 실상은 그렇게 깨끗치 못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선거사범을 엄단」한다고 했지만 입건된 270여명의 선서사범은 거의 모두가 고발에 의한 것이라 보고되었다.

이렇게 공권이 느슨한 속에서 더욱 선거사범이 늘어 났고 국회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장사」를 하다가 정당에서 쫓겨나거나 입건된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과연 정당의 공천이 폭로된 이런 정도로 깨끗한 것이었을까. 공천 과정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그 선거는 금권선거가 될 수 밖에 없음을 뻔한 일이다.

평소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에 인색하거나 외면하던 사람들도 돈만 쓰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던가.

국회의원과는 달리 월급도 없는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많은 돈을 쓰며 입후보하였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공익을 위한 지역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력과 권력이 서로 호혜공존의 관계에 있다.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

고 큰 돈을 벌려면 정치와 결탁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국민은 생각한다.

여당국회의원이 지역구관리하는데 한달에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중에 경조비만도 약 800만원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원월급과 중앙당 지원금 합쳐 500만원되는 금액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예산격차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부족된 소요예산은 과연 어떻게 조달되는 것일까.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기업도 권력과 밀착한다는 것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가장 절실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접근해야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경밀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만들게 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요즘 아이들 소망도 한결같이 돈과 출세에 있으며,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하여 좋은 학교에 보내거나 많은 재산을 물려 주는 것을 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업이나 정치의 사회적 윤리나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부질없는 일이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도 향락이라 생각하여 향락업소가 사회의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돌아나고 있다.

그 동안 무법천지를 난무한 폭력배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소탕한 것도 바로 폭력이 권력이나 금력과 결합된 폭력조직을 갖고 막강한 힘을 구사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요즘의 비리와 부정은 홀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집단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예체능계 대학입시의 부정도 그렇고 땅 투기 및 관료의 비리도 그리고 국회의원의 외유내몰 사건도 그렇다.

지난번 수서지구의 땅 부정투기사건에 이르러서는 땅 부정투기꾼을 중심으로 이것을 다스릴 정치의 공동작품으로 밝혀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격분을 넘어서 이 땅에 산다는 것에 허무감마저 느끼게 한 바 있다.

지성은 힘 없이 오솔 길에 밀려나 한숨만 짓고, 예의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허공을 보며 통곡하고, 금력과 권력만이 화려한 스타로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이때, 도대체 우리 선량한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며 무엇을 믿고 내일의 희망을 키워 나가야 하는가 자탄할 뿐이다.

孟子가 말하기를 「恥惡之心, 義之端也」 즉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義의 시작이라 하였지만 이와같이 부정축재를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좋은 권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권좌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어제 그제 셋방살이 하던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공공연히 서로 경쟁하듯 호화주택과 최고급 승용차로 이웃과 국민에게 과시하려하고 그 부정 비리에서 좋은 축재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현실이다. 그와같이 부정축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니 그 곳에 정의가 있을 리 없고 정치에 정의가 없으니 부정축재를 또한 악으로 생각할 리 없다.

어느날 憲이라는 제자가 孔子를 찾아와서 恥의 참 뜻에 대하여 질문한 일이 있다. 이 때 공자는 『나라에 正道가 없는데 국록을 먹는

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마찬가지로 나라에 정도가 없는데 富하고 貴하게 산다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李朝가 단일왕조로 5백년의 역사를 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것을 기적의 왕조라 부르고 있지만 이러한 기적을 이룬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당시의 관리와 양반사회에 있어서의 검소한 생활윤리라 지적한다.

그래서 이조시대에는 청렴의 청백리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품삯 이원익선생은 인조 때 40년간 재상으로 있다가 연로하여 그 자리를 내놓고 낙향했으나 집이 풍우를 가릴 수 없는 낡은 초가여서 임금이 즉시 집 한채를 지어 주었고 세상을 떠났을 때, 돈이 없어 관을 갖추지 못하여 임금이 그 말을 전해 듣고 곧 관재를 보내 주어 장의를 무사히 치루었다고 한다.

또 영조 때 김수평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재무부에 해당하는 관청의 관리였다. 그 동생도 역시 관리였는데 하루는 아우집에 갔다가 뜰에 놓인 향아리 속에 물감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무엇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동생이 『생활에 보태려고 아내가 염색 일을 하는 겁니다』고 대답했다. 천성이 청렴결백한 김수평이 벌컥 화를 내며 향아리를 모조리 뒤엎어 버리고 『우리 형제가 모두 관리의 집에서 이런 장사까지 하면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이을 것이냐』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그와같이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청빈과 의절을 존중하고 재화의 탐욕을 수치로 생각하면서 공인의 양심을 지키고, 국민이 또한 그것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회풍조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역대의 우리 정치인들과 정권들이 내세우는 「깨끗한 政府, 깨끗한 政治」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의 과학기술도 이러한 맑은 사회속에서 또 보다 효과적이고도 양심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